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분야에너지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 업무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종욱)는 12월 1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와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원에 농가에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사업비 부담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체결에 따라 농식품부가 2019년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적정 사업자를 선정하면, 공사는 농업인이 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한전은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에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농업분야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성공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전남도 신규지정...전국 거점단위
구제역 정밀 진단체계 구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전라남도 동물 위생시험소를 12월 13일자로 구제역 정밀 진단 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경북을 시작으로 구제역 조기 검색 및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하여 지방 자치 단체에 구제역 정밀 진단 기관 지정을 추진한 이후 6년 만에 전국적인 구제역 정밀 진단 거점 체계가 완성됐다.

* 전국 구제역 정밀진단기관 지정 현황(9개소)
: 경북(12), 충남·경기(13), 경남(14), 강원(15), 전북·충북(16), 제주(17), 전남(18)

이번 검역본부의 구제역 정밀 진단기관 지정으로 지방 자치 단체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방역 및 구제역 발생 지역별 자체적인 사후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검역본부는 정밀 진단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이상 교육 실시, 1년마다 장비 전문가 등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해 진단 표준화 및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전라남도의 구제역 정밀 진단 기관 지정으로 전국 거점 단위 구제역 정밀 진단 체계가 구축되어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구제역 방역 조치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구제역 정밀 진단 역량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CCP인증원

기자간담회...주요성과 발표
"질적 성장위해 힘쓸 것"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12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8년 주요성과 및 중장기 경영목표'를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기윤 원장을 비롯해 HACCP인증원 관계자들과 30여명의 기자들이 참석했다.

주요성과는 △안전관리 일원화 및 인증 내실화 △HACCP 운영수준 제고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통합·상생의 조직문화 조성 등으로 HACCP인증제도의 질적인 측면을 보강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중장기 경영목표 역시 △안전관리인증 내실화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영혁신 문화 조성으로, 인증제도의 내실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성조 기술사업본부장의 '과학화 장비 도입'에 대한 발표도 이뤄졌다. HACCP인증 준비업체에 과학화 장비를 대여해 인증취득에 도움을 주고, 사후심사시 서류 위주의 심사에서 탈피하겠다는 목적이다.

장기윤 원장은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구축과 과학화 장비 도입으로 HACCP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
식품안전사고 대응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아시아 국가 간 식품안전정보신속교류를 위한 '2018 아시아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 WPRO)와 공동으로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 파크에서 개최했다.

* 인포산(INFOSAN,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 식품안전당국자간 국제네트워크 (아시아 인포산: 한국, 일본, 중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아시아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는 국제적인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시아지역 국가 간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2011년 구축돼, 올해로 5회를 맞았다.

이번 회의에는 WHO/FAO INFOSAN 사무국,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 WHO 동남아시아지역사무처(SEARO) 관계자와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을 포함한 18개국 및 특별초청국인 영국 식품기준청(FSA)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2018 인포산 식품안전 긴급상황 모의훈련 결과 ▲영국의 인포산 활동 협력 방안 ▲식품안전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우리나라는 식품안전정보 수집·공유에 관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발표하고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아시아 인포산 국제회의가 식품안전당국자간 식품안전정보의 신속 교류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2018 굿콘텐츠서비스 대상
[농사로] '우수상' 수상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가농업기술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가 12월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굿콘텐츠대상' 시상식에서 웹사이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굿콘텐츠서비스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굿콘텐츠서비스' 인증을 받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중 최우수 콘텐츠 서비스를 선정한다. <농사로>는 올해 인증 받은 252개의 웹사이트 중 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수상했는데,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별로 운영해 오던 14개 농업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한 농업기술포털<농사로>에는 작목기술정보가 9천 940건, 농업관련 콘텐츠는 무려 9백만 건을 제공하고 있어 농업 기술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오병택 지식정보화담당관은 "앞으로도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고품질들도 접근과 활용이 쉽도록 음성 인식 기능을 보강하는 등 편의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영암·무안·신안군 소재 9개사와
우수 농수산물 수출확대 결의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12월 14일 신안군 소재 (주)신안천사김에서 영암·무안·신안군 소재 농수산물 수출업체 9개사와 함께 수출 결의회를 가졌다.

광주·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며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수출 증가율인 2.9%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고 특히 영암·무안·신안군 수출실적은 전년 대비 약 30%의 증가세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업체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됐다. 결의대회 후 행사 참석자들은 지역 대표 수출품목인 김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수출과정을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 확대 독려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참석했다.

백진석 aT 부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내 중소 농수산물 수출업체 간의 협력과 소통을 지속하고 함께 커 나가는 '지역동반성장'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농수산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포용사회로 가는 길...' 주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이 12월 19일 (주)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포용사회로 가는 길,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KREI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개최하는 이번 컨퍼런스 1부 행사에서는 김창길 KREI 원장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회사와 축사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포용국가를 향한 국가균형발전과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성주인 KREI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이 '2018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2부 행사에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이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용적 복지정책', 채성주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농어촌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적 교통서비스', 최령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장이 '마을 사례로 살펴 본 농어촌 주택 실태와 향후 개선 과제', 김용현 푸마시 대표가 '미래의 농부를 찾아서 키우는 푸마시'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한다. 발표 이후 송미령 KREI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주재로 토론이 이뤄졌다.

김창길 원장은 "토론회 결과는 내년에 새롭게 수립될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향후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을 되살리는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지역사회 온정 나눔활동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12월 22일 김장철을 맞아 지역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로 이웃사랑 나눔활동을 가졌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축평원 직원들이 참여해 세종시 전의면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전의요셉의집을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을 담갔다.

또한 전통시장에 활기를 더하는 차원에서 직접 세종시 조치원을 세종전통시장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으로 돼지고기 등 김장철 물품들을 구입해 전달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사회공헌기금으로 준비해 지역사랑의 의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축평원 10개 지원에서 각기 지역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매년 지속적으로 사랑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백종호 축평원장은 "축평원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가치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